

■ 지평 소식 ■

[공익] 지평과 함께하는 산 정화활동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5월 31일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관악산 입구부터 서너 명이 조를 이뤄 관악산 호수공원, 연주대, 국기봉 등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푸른 산에서 초여름의 기운을 만끽하면서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일석이조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평의 작은 손길들이 신록이 우거진 관악산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문의]

-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http://www.gvc.go.kr>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4. 5. 31.)

[공익] 지평, '사회적 안녕(community well-being)'을 주제로 공익강연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7월 3일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멘탈 코치(정신경영아카데미 대표, 더 나은 삶 정신과 원장)를 모시고 '사회적 안녕(community well-being)'이라는 주제로 2014년 제2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요환 선생님은 진실의 힘 재단에서 간첩조작사건 고문 피해자들에게 심리치유를 해주신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날 공익강연에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안녕"이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요소에 대하여 해부학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결국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수치가 높아지며, 의학적으로도 면역력이 증강된다는 사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진정한 개인의 행복이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익] '소외계층을 위한 제빵' 활동

법무법인 지평은 매 짝수달 셋째 주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제빵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도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지평 소속 변호사 및 직원 10여 명은 약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식빵과 야채빵 등을 만들어 복지관 및 경찰지구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